

도전 “2010년 한우 등급판정 결과 최우수농가” 홍창업 농가

부산경남지원 과장 차명렬



홍창업 대표

한우 거세우 비육을 하고 있는 농가 중에 1st등급 출현율이 96.2%(근내지방도 No 8.7)를 기록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. 그 주인공은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서 한우 거세우 200여두를 비육하고 있는 홍창업 농가이다.

차별화된 최고급육 생산

부산경남지역은 한우 암소 거래가 대부분이고 또한 소비자들도 그 맛에 익숙해 있어 한우거세우 비육시장이 쉽게 형성되지 않고 있었다. 그래서 부산경남의 많은 한우거세우 비육농가들은 거세우를 서울이나 대구경북으로 출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홍 대표는 다른 한우 거세우와 차별화한 최고급육 생산만이 부산경남지역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TMF(완전혼합발효)사료를 지인들과 연구·적용하여 오늘과 같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.

사양관리

좋은 등급판정결과에는 무엇보다도 사료의 영향이 컸지만 환기시설과 바닥관리 사료조 및 급수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 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둔 결과이다.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올해 전국이 구제역 등으로 시끄러웠지만 홍 대표는 어떠한 소독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소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. 그 이유는 소독을 하게 되면 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미 소 성장에 이롭게 형성된 농장 내 환경(축사 바닥내 많은 미생물 생존) 또한 함께 파괴된다는 이유였다.

향후계획

홍 대표의 농장에서 출하된 한우거세우는 도매시장에서 다른 한우거세우보다 품질 차별화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축산물 도매시장(공판장)에서 이미 중매인과 유통업자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다.

홍 대표는 1st등급 출현율 96.2%에 만족하지 않고 한우거세우가 암소와 비교하여 구수하고 깊은 맛이 떨어지는 것을 암소에 가까운 맛을 낼 수 있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TMF(완전혼합발효) 사료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우거세우 비육 사업에 전념할 것이라 한다.

항목별 등급판정 결과

(09.10.1~10.7.13, 한우거세우)

구분	출하두수 (두)	등지방 (mm)	등심 단면적 (cm ²)	도체중 (kg)	육량지수	근내지방 (No.)	육질B 이상 출현율 (%)
홍창업 농가	26	12.5	109.7	388.7	68.99	9.7	0
전국평균	11.7	12.9	88.6	418.2	64.82	5.3	71.9